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2.209>

JCCT 2024-3-26

맨체스터의 노동계층의 공간 구조: 『메리바튼』과 『영국 노동계층의 상태』를 중심으로

Spatial Structure for Laboring Classes in Manchester: *Mary Barton* and *The Condition of the Working Class in England*

이 협*

Hyub Lee*

요약 본 연구는 19세기의 맨체스터의 노동 계층의 생활 공간 구조를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맨체스터에는 대표적인 노동 계층이 집단 거주하는 구역이 있었다. 엘리자베스 개스켈의 『메리바튼』은 노동자 계층의 비좁고 비위생적인 거주 여건을 묘사함으로써 그들의 비참한 생활환경을 드러낸다. 영국의 산업지대에서의 노동 계층의 생활을 분석한 엥겔스의 『영국 노동계층의 상태』는 특히 맨체스터를 주로 분석한다. 획일적으로 형성된 노동계층의 거주 구역은 부르주아의 거주 지역과는 분리되어 있었다. 도심의 상업 지구를 둘러싼 열악한 구시가지에 노동자 거주지역이 있었고, 그 주변에 중산층 거주 지역이 있었으며, 외곽에는 상류층의 주거지가 있었다. 분리와 차별로 특징지어지는 산업 도시로서의 맨체스터의 형성을 추동한 것은 지배이데올로기이다.

주요어 : 맨체스터, 엥겔스, 개스켈, 노동계층, 분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patial structure of laboring classes in Manchester in the 19th century. Manchester had districts where laboring classes lived in destitution. Elizabeth Gaskell's *Mary Barton* demonstrates the miserable state of laboring classes by depicting their small, dirty living residential spaces. Engels's *The Condition of the Working Class in England* analyzes the laboring classes in industrial areas in England, especially Manchester. The laboring classes' districts formed in a set pattern were separated from the area for bourgeois. It lied in the old district near commercial areas, while upper classes were outside areas. It was the dominant ideology that drove the transformation of Manchester as an industrial city characterized by separation.

Key words : Manchetser, Engels, Gaskell, laboring classes, separation

1. 서론

도시의 구조는 사회·경제 체제의 산물이며, 그 체제를 뒷받침하고 형성하는 물질적 조건이기도 하다. 도시는 역사적으로 특정한 시기의 특정한 정치 이

념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19세기 맨체스터의 경우에 도시의 구조 형성을 추동하는 커다란 동인은 지배 이데올로기였다. 계획도시의 성격이 강했던 맨체스터에 기저하는 이념이 어떻게 외현화되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정회원, 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부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4년 1월 25일, 수정완료일: 2024년 2월 19일
게재확정일: 2024년 2월 25일

Received: January 25, 2024 / Revised: February 19, 2024

Accepted: February 25, 2024

*Corresponding Author: hyubleee@chosun.ac.kr

Division of General Studies, Chosun Univ., Korea

당시대의 맨체스터의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맨체스터를 직접 관찰한 실제적인 경험에 근거한 저작물을 근거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엘리자베스 개스켈(Elizabeth Gaskell)(1810-65)이 창작한 『메리 바튼』(*Mary Barton*)(1848)과 프리드리히 엥겔스(Friedrich Engels)(1820-95)가 저술한 『영국 노동계층의 조건』(*The Condition of the Working Class in England*)(1844)을 통해서 맨체스터의 외형과 구조를 파악해 보고하고자 한다.

개스켈과 엥겔스는 동시대에 맨체스터에서 거주한 적이 있었고 그들이 관찰한 주변의 거주 여건 역시 유사했다. 개스켈은 1832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맨체스터에 거주했고, 엥겔스는 22살 때인 1842년 11월에 맨체스터로 와서 1844년 9월에 독일로 돌아갔다. 두 저자가 공통적으로 주로 관심을 가진 것은 노동계층의 공간이었다. 샬리 미노그(Sally Minogue)가 지적하듯이 “개스켈과 엥겔스는 맨체스터의 노동 계층의 최악의 생활 조건을 묘사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1].

『메리 바튼』은 「맨체스터 생활 이야기」(“A Tale of Manchester Life”)라는 부제가 붙어있을 정도로 맨체스터의 노동자 계층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빅토리아 시대의 맨체스터를 다룬 대표적인 소설로 간주할 수 있다. 작품의 정말로 인상적인 점은 그 시대의 노동자 계층 가정의 일상생활을 기록하려는 노력이라고 레이먼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가 지적한 것에서도 나타나듯이 시대적 사실성이 뛰어나다[2]. 비평적 관심 역시 이러한 사실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샬리 포스터(Shirley Foster)가 지적하듯이 “대부분의 비평이 집중한 것은 시도된 사실과의 유사성이었다. 일부 초기 비평가들은 여지껏 소설에서 무시되어온 지역이자 사회적 부분에 생명을 불어왔다는 칭찬으로 가득 차 있었다”[3]. 리처드 그라빌(Richard Gravil)이 덧붙이듯이 “『메리 바튼』은 ‘영국의 조건’ 소설의 최고의 예로서, 실제로 여러 면에서 그 장르의 가장 성공작으로 가장 흔히 언급된다”[4].

이에 비해 『영국 노동 계층의 조건』은 맨체스터만을 대상으로 저술하지는 않았다. 영국 전역에 걸쳐 산업지대의 노동자의 생활 조건을 다루고 있

는 저작인데, 특히 맨체스터의 도시 구조에 대한 분석이 탁월하다. 산업혁명이 절정에 도달해있던 19세기 중반에 저술된 두 저작물에서 묘사하는 맨체스터의 빈민가를 구성하는 지배적인 논리는 산업 자본주의이다. 따라서 엥겔스는 맨체스터를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당시의 사회·경제적 작동기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다. 아루나 크리슈나무티(Aruna Krishnamurthy)에 의하면 “변증법적 유물론을 이해하기 위한 지역으로 엥겔스가 맨체스터를 택한 것은 맨체스터를 특이한 상황의 상징으로 본 산업도시에 대한 대중적인 지적 반응을 반영한다”[5].

이러한 일반적인 평가를 주지하며, 2장에서는 개스켈의 사실적인 묘사에 대해서 고찰해보고, 3장에서는 엥겔스의 도시 관찰 및 분석에 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한다. 처음에는 도시의 표면적인 모습을 관찰하고, 이어서 도시의 전체적인 구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시를 구조화하는 사회 경제적 구조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처럼 개스켈과 엥겔스를 연관 지어서 맨체스터를 분석하는 연구는 국내에서는 드물었기에, 본 연구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II. 『메리바튼』의 비참한 노동자 계층

『메리 바튼』은 맨체스터에서 오래 동안 실제로 거주하며 작가 생활을 한 개스켈의 작품이므로 도시의 노동자들의 생활을 효과적으로 묘사해서 재현해주고 있다. 맨체스터의 모습과 인상은 작중화자의 발언에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아! 꽃이 없는 맨체스터에서 비는 그저 우울하게 만드는 암울한 효과밖에 없었다. 길은 젖었고 더러웠고, 집에서 떨어지는 것도 젖었고 더러웠으며, 사람들도 젖었고 더러웠다. 실제로는 대부분 집안에 갇혀 있었다.

But in Manchester, where, alas! there are no flowers, the rain had only a disheartening and gloomy effect; the streets were wet and dirty, the drippings from the houses were wet and dirty, and the people were wet and dirty. Indeed, most kept within-doors[6].

암울함과 불결함이 맨체스터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빈민들의 거주 환경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묘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도로는 포장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중간 아래로 도랑에 물이 흐르자 가끔씩 거리에 넘쳐나는 구멍에 웅덩이가 생겼다. "물을 주의하라"는 옛 에든버러의 외침은 이 거리에서 만큼이나 절실하지는 않았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 여자들은 문으로 집의 온갖 오물을 배수구에 던져버렸다. 오물은 결의 웅덩이로 흘러가서 넘치고 썩어버렸다. 잿더미는 보행용 돌이었으며, 청결을 최소한으로라도 생각한 행인들은 발을 딛지 않도록 조심했다. 우리 친구들은 예쁘지도 않았지만, 좁은 공간으로 이어지는 계단에 닿을 때까지 피해서 걸었다. 그 좁은 곳에 서있으면 머리가 거리보다 한 피트 아래에 있게 되며, 동시에 몸은 움직이지 않아도 지하실의 창문과 바로 맞은 편에 있는 축축한 진흙 벽에 닿기도 했다. 이 썩은 곳에서 심지어 인간 가족이 사는 지하실로 한 걸음 더 내려가기도 한다. 내부는 매우 어두웠다. 창유리는 대부분 깨지고 누더기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한낮에도 그 자리에 어스름한 빛이 스며들었다. 내가 거리의 상태에 대해 말한 후에는, 누구도 테번포트가 거주하는 지하실에 들어갈 때 냄새가 두 사람에게 충격을 줄 정도로 너무 자극적이라는 사실이 놀랍지도 않다.

It was unpaved; and down the middle a gutter forced its way, every now and then forming pools in the holes with which the street abounded. Never was the Old Edinburgh cry of "Gardez l'eau" more necessary than in this street. As they passed, women from their doors tossed household slops of every description into the gutter; they ran into the next pool, which overflowed and stagnated. Heaps of ashes were the stepping-stones, on which the passer-by, who cared in the least for cleanliness, took care not to put his foot. Our friends were not dainty, but even they picked their way till they got to some steps leading down into a small area, where a person standing would have his head about one foot below the level of the street, and might at the same time, without the least motion of his body, touch the window of the cellar and the damp

muddy wall right opposite. You went down one step even from the foul area into the cellar in which a family of human beings lived. It was very dark inside. The window-panes were, many of them, broken and stuffed with rags, which was reason enough for the dusky light that pervaded the place even at mid-day. After the account I have given of the state of the street, no one can be surprised that on going into the cellar inhabited by Davenport, the smell was so foetid as almost to knock the two men down[7].

당시 노동자 거주지역의 환경이 얼마나 어둡고 열악한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정비되지 않은 구시가지의 밀집된 건물에서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거주했다. 노동자들이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반지하나 지하에서 거주하는 것은 흔했다. 산업혁명의 발발로 인하여 공장지대에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해진 상황에서, 급증한 노동자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했다. 게다가 그들의 거주 공간은 값싼 곳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린 것이다.

이러한 열악하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불결한 조건에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다.

맨체스터에서 의례히 그렇듯이 열병은 저열하고, 지독한 장티푸스 유형이다. 비참한 생활, 불결한 이웃과 극도의 심신 쇠약이 병을 불러온다. 그것은 치명적이고, 악성이고 전염성이 강하다. 그러나 빈자들은 감염에 대하여 숙명론자들이다. 그것이 그들에게도 좋은 것이, 그들의 밀집한 주거지에서 병약자를 격리시킬 수 없다.

"The fever" was (as it usually is in Manchester) of a low, putrid, typhoid kind; brought on by miserable living, filthy neighbourhood, and great depression of mind and body. It is virulent, malignant, and highly infectious. But the poor are fatalists with regard to infection; and well for them it is so, for in their crowded dwellings no invalid can be isolated[8].

장티푸스는 주로 배설물을 통하여 전파된다. 노동자의 거주 지역은 배설물 처리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

다. 또한 오염된 어크 강 주변에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인성 전염병이 확산될 위험이 더욱 컸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에서 생활하는 노동자의 건강 상태가 양호할 리가 없다. 맨체스터 노동자의 전형 역시 묘사되어 있다.

한 명은 맨체스터의 완전한 표본이었다. 공장노동자에 게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스스로 자라서, 성인이 되어 기계 속에서 산다. 그는 체격이 평균 미만으로 왜소하고 말랐다.

One was a thorough specimen of a Manchester man; born of factory workers, and himself bred up in youth, and living in manhood, among the mills. He was below the middle size and slightly made[9].

보통 이하의 여윈 체격은 노동자 계층의 열악한 생활 조건을 반영한다. 노동자의 신체는 산업 생산을 위해 착취당하는 물리적 도구이다. 노동자 계층이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성장기 중에 제대로 물질적 혜택을 못 받는 현실을 예시해 준다. 노동자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개인은 자신이 속한 계급적 조건에 복속되어 있다. 노동자는 특정한 역사적 시기의 구성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노동자 개인은 전체 노동자 집단에게 주어진 물질적 환경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러한 물질적 환경은 상위 계층이 노동자 계층의 자기 개발과 신분 상승의 토대를 억누르는 역할을 한다. 당시의 상황은 계층의 기능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더라도 갈등론적인 시각에서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위의 인용 부분만 보면 하층민들이 저항의지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작품의 다른 부분들에서는 강력한 저항 의지가 구현되어 있다.

노동자의 전형을 제시한다는 것은 노동자가 사회적인 카테고리로서 여러 가지 사회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 인간이 사회체제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어진 수단적인 도구로 전락해 버린다. 전형성은 각 개인들의 개별적 특성이 억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성의 말살은 도시인의 특징이기도 하다.

계층 차별은 노동자들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노동자 집단 거주 지역에서는 주로 노동자들끼리 의사소통하게 되며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용이해진다. 『메리바튼』에는 노동자들의 계급의식과 사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 있다.

실제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작가가 체계적인 정치적 식견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작품의 내용이 정치적인 색채를 짙게 띠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 작가는 정치,경제적인 상황의 본질을 자기 나름대로 감지하고 있다. 작가는 박애 주의적인 관점에서 빈민에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모니카 코레아(Monica Correa)가 지적하듯이 “『메리 바튼』의 성공은 전통적으로 개스켈의 날카로운 관찰 감각, 대단한 상상력과 빈민과의 깊은 동정심에 이유가 있다”[10].

III. 엥겔스의 맨체스터의 구조 분석

『메리바튼』에서 묘사되는 맨체스터의 모습과 엥겔스가 묘사하는 맨체스터의 모습은 대단히 유사하다. 개스켈과 마찬가지로 엥겔스가 무엇보다도 주목하는 점은 노동자들의 열악한 거주 조건이다. 맨체스터와 그 주변의 약 35만 명의 노동자들의 거주 조건이 거의 유사하다고 판단한 엥겔스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거주조건에 대해서 설명한다.

노동자들의 거주지는 어디에서나 나쁘게 계획되고, 나쁘게 지어지고, 최악의 조건으로 유지되고, 환기가 잘 안되고, 축축하고 건강에 좋지 않다. 거주자들은 가능한 한 최소한의 공간에 갇혀서, 보통 최소라도 한 가족은 방 하나에서 잔다. 가옥의 내부 배치는 궁핍함에 차이가 있어서, 심지어 가장 필수적인 가구도 완전히 없을 정도이다.

The dwellings of the workers are everywhere badly planned, badly built, and kept in the worst condition, badly ventilated, damp, and unwholesome. The inhabitants are confined to the smallest possible space, and at least one family usually sleeps in each room. The interior arrangement of the dwellings is poverty-stricken in various degrees, down to the utter absence of even the most necessary furniture[11].

이러한 설명은 실질적으로 『메리바튼』에서 묘사한 거주환경을 간략히 정리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엥겔

스 역시 이러한 열악한 노동자의 거주 환경에서 발생하는 비위생적인 환경 및 그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전염병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알렌즈 코트라고 알려진 두썬 브리지 밑의 첫 번째 코트가 콜레라가 창궐하던 시기에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생 경찰은 그곳에서 사람들을 대피시켰고, 쓸어버린 후에 석회 염화물로 방제하도록 명령했다.

The first court below Ducie Bridge, known as Allen's Court, was in such a state at the time of the cholera that the sanitary police ordered it evacuated, swept, and disinfected with chloride of lime[12].

당시 노동자 거주 지역의 위생 상태는 매우 열악했다. 이러한 위생 불량은 런던, 파리와 같은 다른 대도시에서도 만연했다. 도시에서의 전염병은 19세기 이전에도 자주 발생한 심각한 문제였다.

이처럼 엥겔스는 개스켈과 유사하게 노동자의 생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개스켈과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표면적인 인상 묘사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개스켈과는 다르게, 엥겔스는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자로서 구조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스켈이 작품의 서문에서 정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고 언급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험멜파르브에 의하면 『영국 노동계층의 조건』은 “최소한 그 조건에 책임이 있는 시스템의 분석, 그 조건과 시스템 모두에 대한 도덕적 비판, 그리고 시스템의 발달과 그 시스템 하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의한 궁극적인 파괴에 대한 예측을 포함했다”[13]. 엥겔스의 저술은 도시의 물질적인 구조와 그 구조가 결정짓는 생활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엥겔스는 도시의 전체적인 구조적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제공한다.

건물들의 총합이 보통 맨체스터라고 불리는데, 40만 명에 못 미치기보다는 초과하는 거주민이 있다. 타운 자체가 특유하게 건설되어서, 한 사람이 몇 년 동안 살면서 매일 출입할 때에, 노동자 구역이나 심지어 노동자를 마주치지 않을 수도 있다. 업무나 산보로 한정한다면, 공개적인 의식적 결정은 물론이고 무의식적인 암묵적 동의로 노동자들의 구역이 중산층과 분리된다는 사실로부터 이

러한 상황이 일어난다.

The whole assemblage of buildings is commonly called Manchester, and contains about four hundred thousand inhabitants, rather more than less. The town itself is peculiarly built, so that a person may live in it for years, and go in and out daily without coming into contact with a working-people's quarter or even with workers, that is, so long as he confines himself to his business or to pleasure walks. This arises chiefly from the fact, that by unconscious tacit agreement, as well as with outspoken conscious determination, the working-people's quarters are sharply separated from the sections of the city reserved for the middle-class... [14].

맨체스터의 정체성은 건물들의 집합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대표된다. 건물들은 주로 산업 생산 및 이를 뒷받침해 주기 위한 거주용 공간이다. 맨체스터는 원래 대도시가 아닌 조그만 촌락이었다. 맨체스터는 석탄 생산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점으로 인해서, 산업화와 함께 급속히 성장한 도시이다. 19세기 전후로 맨체스터를 지배하는 논리는 영국의 산업혁명의 논리일 수밖에 없다.

노동자의 거주 지역에서 개인의 특성은 무시되고 획일화된 집단적 조건에 맞추어져 함입된다. 이는 노동자 주택의 건축에서부터 그렇다. 노동자의 작은 주택은 1채만 짓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항상 10채에서 20채 씩 집단적으로 건축하며, 도급 업자 1명이 거리 1~2개를 한꺼번에 짓는다고 엥겔스는 지적한다[15]. 노동자의 주거 지역은 생성부터 획일적인 집단적 생산시스템인 자본주의의 체제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산업화의 추세에서 엥겔스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계층간의 공간적 구분이다. 중산계층은 노동자 계층과 자신들을 사회·경제 체제적으로는 물론 공간적으로도 분리시키려고 했다. 실제로 노동계층의 거주 구역은 부르주아의 거주 지역과는 분리되어 있었다. 도심의 상업 지구를 둘러싼 열악한 구시가지에 비참하게 거주하고 있었다. 이 주변에 중산층 거주 지역이 있었고, 또 외곽에는 상류층의 주거지가 있었다. 즉 맨체스터의 도시 공간 구조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사회적 계층에 의해 거주 공간이 구

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중산층과 노동 계층의 소외 양상이 어느 도시에서 보다 특히 맨체스터에서 심하게 나타난다고 앵겔스는 덧붙인다.

맨체스터에서만끔 공공도로로부터 노동자 계층이 그토록 체계적으로 차단된 것을 나는 본적이 없는데, 부르주아의 시선과 신경을 거스를만한 모든 것이 친절하게 은폐되었다.

I have never seen so systematic a shutting out of the working-class from the thoroughfares, so tender a concealment of everything which might affront the eye and the nerves of the bourgeoisie, as in Manchester [16].

맨체스터는 산업화와 그에 수반하는 슬럼화가 영국 내에서 매우 급속히 진행되었던 대표적인 공업 도시이다. 노동자의 비중과 세력이 매우 컸기 때문에, 그들을 차별화할 필요성이 그 지역의 부르주아들에게 더욱 컸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간적 구분은 계급차이를 심화시키게 된다. 물질적인 구조가 계급적 구분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도시의 구획 분할은 계층 분리는 물론 더 나아가서 차별을 의미한다. 근대적인 도시의 구조화는 특정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도시의 사회·경제 체제의 특징은 직업이 세분화되어있다는 것이다. 이는 주거환경의 차이에 의한 분리이기도 했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메리 바튼』과 『영국 노동 계층의 조건』을 통해서 맨체스터의 공간 구조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었다. 열악한 노동자 계층의 거주지를 분리시키는 도시의 외형적인 구조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구조를 형성시키는 동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당시대의 영국의 산업혁명이 산업도시들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 예시해주고 있다. 맨체스터의 공간 구조의 특성은 이 한 도시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앵겔스는 노동자들의 집단적 거주 형태가 영국 어디에서나 동일하다고 서술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을 완전

히 수용할 수는 없다. 실제로는 지역과 도시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고, 현재에도 그 잔흔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반지하식 거주 형태는 인구가 더 밀집된 런던 같은 곳에서 지방 중소 도시보다 흔하게 발견된다. 그렇더라도 본질적인 특성의 보편성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References

- [1] M. Sally. "Introduction", Mary Barton. Wordsworth, p. xix, 2012.
- [2] R. Williams, Culture. Fontana, 1981.
- [3] S. Foster, "Introduction: the Genesis of Mary Barton", Mary Barton. Oxford UP, p. 3, 2006.
- [4] R. Grivil. Elizabeth Gaskell: Mary Barton. Humanities-Ebooks, p. 11, 2007.
- [5] A. Krishnamurthy. "More than Abstract Knowledge': Friedrich Engels in Industrial Manchester", *Victorian Literature and Culture*, Vol. 28, No. 2, p. 429, 2000. DOI: 10.1017/S1060150300282119
- [6] E. Gaskell. Mary Barton. Century Co., p. 91, 1906.
- [7] E. Gaskell. Mary Barton. Century Co., p. 54, 1906.
- [8] E. Gaskell. Mary Barton. Century Co., p. 55, 1906.
- [9] E. Gaskell. Mary Barton. Century Co., p. 4, 1906.
- [10] M. Correa. "The early industrial novel: Mary Barton and its Predecessors", *Bulletin of the John Rylands Library*, Vol. 63, No. 1, p. 11, 1980.
- [11] F. Engels, The Condition of the Working Class in England. Oxford UP, p. 85, 1993.
- [12] F. Engels, The Condition of the Working Class in England. Oxford UP, p. 61, 1993.
- [13] G. Himmelfarb, "Engels in Manchester: Inventing the Proletariat", *The American Scholar*, Vol. 52, No. 4, p. 483, 1983.
- [14] F. Engels, The Condition of the Working Class in England. Oxford UP, p. 57, 1993.
- [15] F. Engels, The Condition of the Working Class in England. Oxford UP, p. 59, 1993.
- [16] F. Engels, The Condition of the Working Class in England. Oxford UP, p. 62, 1993.

※ 이 논문은 2023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